

# 불교학 결집대회 5월 4일 개최

## 가입단체, 학회 14·연구소 10·학교 6곳

## 학자 200여명 11분과로 나눠 이틀간 토론

한국불교학결집대회(5월 4~5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불교학결집대회는 가입단체만 14개 학회와 10개 연구소, 6개 학교를 합해 30개에 달하고, 200명이 넘는 불교학자들이 이틀에 걸쳐 11개 분과로 나눠 발표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다. 불교학 연구자와 전공자들이 총망라됐다고 하는 점에서 한국 불교학계의 연구 동향과 저변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결집대회 조직위원회는

1일 논문 발표 신청자 213명을 신라·고려, 원호, 조선·근현대, 화엄·중국삼론, 중국불교·중국선·일본선, 기신론·법화전대·인도대승이후, 비교·불교문화예술, 불교어문학, 불교음악 분과로 나눠 배정했다. 애초 신청 받았던 20개 분야를 11개 분과로 재조정해 분과당 발표 인원을 20명으로 배정했다. 이번 불교학결집대회는 무엇보다 신진 학자의 발굴과 불교학 저

변 확대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분과 배정이 끝난 213명 가운데 현재 대학에 소속된 177명을 보면 동국대가 119명으로 67%에 달한다. '특정 학교 편중'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발표자의 소속 대학 수가 40여 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지역 분포 또한 전국적이다. 동국대가 조계종대학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불교학 연구의 저변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불교학결집대회에 가입한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와 한국불교원전연구학회 소속 학자들은 그 동안 불교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던 경우여서 신진 학자 발굴과 불교학 풍토의 다양화에도 일정 부분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1일 확정된 분과를 보면 우리나라 불교학자 층이 특정 시대, 특정 인물에 지나치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시대별로는 신라와 고려불교 인물은 원호, 교학 측면에서는 화엄학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시대별로 보면 신라 불교가 28

명(원호 19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 불교가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선불교는 8명이었고 근대와 현대는 각각 5명에 그쳤다. 신라 불교 중에서도 원호 관련 신청자가 19명에 달해 따로 하나의 분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 불교학의 연구 성과가 특정 시대 못지 않게 특정 인물에 집중되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 준다. 교학쪽에서도 천태·법화가 7명, 밀교 5명, 선(禪) 5명, 기신론 3명에 비해 화엄 분야는 15명이나 된다. 조직위원장 해주 스님은 "그 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발표하는 만큼 얼마만큼의 학문적 깊이를 보여 줄지도 기대된다"며 "결집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교학계의 현황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술담당=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 “정보화 사회 윤리기준 불교 사법법을 지침으로”

##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주장



바로 '보시'다. 즉 각자 가진 정보를 제공해야만 서로 간에 지적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보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행'으로 설명된다. 인터넷 상에서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문제는 '애어'로 해석할 수 있고, 자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타인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개방시켜 놓는 것이 '동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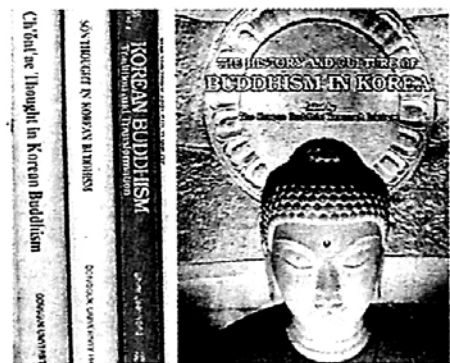
## 정보공유는 공업증생의 결합 의미 선업 쌓게 지혜의 문 열어줘야

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을 주제로 올 한 해 동안 프로그램을 연다. 3월 23일 열린 첫 프로그램에서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발표한 김응철(중앙승가대·사신) 교수는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윤리 기준은 불교의 사법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보의 공유'인데,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법법이 정보화 사회의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보의 공유는

정보 공유 현상을 불교적 시각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김 교수는 "정보의 공유현상은 공업증생(供養衆生)의 결합"이라며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악업을 소멸하고 선업을 쌓을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 가치 판단 능력의 고도화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불교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중요하다"며 "종교적 가치관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물과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이 불 佛書가 없다”

## 칭고 스님 지적, 몇권 안되는 번역서도 구하기 힘들어



◇영어로 번역된 한국 불교 관련 저작들.

현재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한국 불교 저작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한국에서 수행 중인 한 외국인 스님에게서 나왔다. 칭고 스님은 최근 출간된 <불교와 문화> 3·4월호 특집 한국 불교 서적의 외국어 번역 어떻게 해야 하나'에 기고한 글에서 '외국인

들이 볼 수 있는 한국 불교 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칭고 스님은 1993년 한국에서 해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석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영어로 번역된 한국 불교 관련 서적이 얼마나 되기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국내에서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1994년 <Buddhist thought in Korea>을 시작으로 4권을 펴냈고, 개별 학자로는 심재룡(서울대) 교수, 원의범(동국대) 교수, 김희성(서울대) 교수가 있다. 외국 학자로는 루이스 캄카스터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와 로버트 웨스웰(UCLA) 교수가 대표적이다. <Sourcebook of Korea>(콜롬비아대 출판부)도 빼놓을 수 없다. 번역된 몇 권 안 되는 책조차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칭고 스님은 '대부분 절판된 상태'라고 말한다. 또 다른 문제는 다룬 시대가 제한적이라는 것. 칭고 스님은 '영어판 대부분이 현재 살아 있는 선사들의 가르침이거나 500년 전 선사들의 가르침이다'라며 '3백년 이전과 현대 사이를 대외 줄 지어 줄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 한국사연표 발행

### 선사시대 역사사실에서 박영석 씨 K2 등정까지

바로 지난 해 것까지 범위에 넣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표와 다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993년 4월 9일) 김일성 주석 사망(1994년 7월 8일)과 같은 북한 관련 사실을 대폭 실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본다는 취지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군사 정권이 바미안 고대석불을 파괴한(2001년 3월 12일) 등 세계사 주요 내용도 함께 실었다. 1만2천원.



◇종수로 훼손된 김포 암거리 사지.

# 김포해안 절터 훼손된 채 방치

## 경기도 박물관 조사

경기도 김포시 해안지역 절터들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정밀 학술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 해안지역인 양촌면과 대곶면, 월곶면, 통진면 일대에는 암장사지, 원산리사지, 양택리 사지, 오요사지 등 조선시대 절터 네 곳이 남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절터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박물관이 최근 펴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Ⅲ)>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거리 사지는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전각이 자리잡았을 평지가 사라져 버려 주춧돌 등도 확인하기 어렵다. 양택리 사지는 기와 조각이나 축대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절터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요사지도 기와 조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나 석탑이나 석등 등의 석조물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19세기 말의 울기나 기와, 백자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전하는 원산리 사지 역시 악수터 등으로 정비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박물관은 '김포 해안지역 절터들이 자연재해로 손상되거나 절터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다'며 '이 지역 절터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10개의 불교유적과 36개의 고고유적, 20개의 관방유적 등 모두 125개의 유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문헌상 最古 금속활자본

## ‘남명천화상승증도가’ 복원

### 직지보다 145년 이상 앞서

문화재청은 문헌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남명천화상승증도가(南明天和尚證道歌)>를 복원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남명천화상승증도가>는 당 나라 승려 현각이 지은 선종(禪宗)의 지침서로 송 나라 승려 남명선사 법천이 각 구절마다 그 뜻을 구체적으로 풀이해 놓은 책이다. 현존하는 책은 고려 고종 26년(1239년)에 최아가 이미 간행된 금속활자본을 견본으로 삼아 목판으로 다시 펴낸 북간본 중 하나가 전해진 것으로, 브를 758호로 지정돼 있다.

이 책 글머리에 나와 있는 기록에 따르면 이 책의 금속활자본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1377년)보다 145년 앞선, 1232년 강화도 천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2000년부터 '고인쇄 문화 연구 복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해 목판본으로만 전하는 <직지심체요절> 상권을 금속활자본으로 복원한 바 있다. <직지> 상권의 활자 복원을 맡았던 중앙문화재단 제101호 금속활자장 오국진 씨가 작업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월인천강지곡>, <제미자·경자자·갑인자 등 조선시대 금속활자를 복원할 계획이다.>

“미륵부처님은 국토가 안온하고 원적과 도적의 재난이 없고 물이나 불 전쟁의 고통이 없으며 기아와 재난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공경하고 화목하여 모두 한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말씨가 겸손하다”

- 미륵학생 중 -

## 미륵대불 점안식

수국사의 미륵대불의 높이는 43미터이며 자비와 지혜를 거룩하게 장엄하고 있습니다. 실로 백년에 한번 오시기 어려운 미륵대불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국사를 찾는 불자들의 신심을 밝게 비추는 법의 거울이 될 미륵대불 점안식에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 ◆ 일 시: 2002년 4월 9일 (음력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 ◆ 장 소: 수국사
- ◆ 문의전화: 중무소 02)356-2001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14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황금절 수국사  
주지 한정기 (자용) 합장

#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54-3733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치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병학사)